#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 '빅3' 중징계

## 금감원,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부과… 행정소송 불씨 남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 '빅3'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1~3개월간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3사에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보험 3사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주의적경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주의'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제재 수위는 영업 일부정지뿐 아니라 특히 연임은 물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생명)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미지급 규모와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제재심 직전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영업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는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관련, 2014년에 첫 행정제재를 부과했는데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보고 임직원에게 경징계만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금감원은 빅3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계속 거부하자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엄중 조치를 천명했고 중징계 방침까지 통보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일부 지급으로 돌아서도 제재 수위를 체감할 정도로 낮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지 3년 만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감원이 이번에 중징계를 제재 결정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와 보상을 위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조치에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으로 선회한 만큼 동력은 이전보다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라고 본다"면서도 "빅3 생보사가 다같이 일부 지급으로 버텼다면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교보가 전건 지급을 결정해 추진력은 줄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삼성전자, 후원금·사회공헌기금 '투명성 강화'

## 10억 이상 이사회 의결 거쳐야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사회공헌기금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이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심의회의'는 법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1번씩 심사가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1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뉴시스

# 구글-GS25,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협약

구글코리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와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시장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구글플레이에 있는 다양한 유료 앱과 게임, 영화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앱 구매 뿐 아니라 메신저 이모티콘이나 게임 아이템 구매 등 인앱 결제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3월 중순 예정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GS25에서 GS25전용 모바일팝카드결제, 교환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액권 외에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충전할 수 있는 금액선택형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도 GS25에 출시된다.

금액선택형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구매시 1만5000원부터 50만원까지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1000원 단위까지 충전 금액을 설정해 구매하실 수 있다.

/뉴시스

# "'개인연금법 제정안' 5월까지 국회 제출"

## 금융위, '공청회'에서 밝혀… 투자일임형 추가·통합 관리계좌 도입 등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유광열 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반면 노인 빈곤율은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상임위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장수(長壽)를 예전처럼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같은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 뿐이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로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또 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최저생활비·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해 개인연금 압류도 제한토록 했다./뉴시스

# 트위터, '고화질 생방송' 일반인 제공

트위터(Twitter)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페리스코프(Periscope)'의 고화질 프로그램 '페리스코프 프로듀서(Periscope Producer)'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트위터와 페리스코프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전문가용 카메라나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코더 등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화질 생방송 콘텐츠는 기존 영상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타임라인에 노출된다. 또한 생방송 이후에도 페리스코프, 트위터 모바일 앱, 페리스코프 TV 웹사이트(www.periscope.tv)에서 고화질 콘텐츠 감상이 언제든 가능하다.

고화질의 트위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은 방송 진행자는 누구나 페리스코프 프로듀서 등록 페이지(bit.ly/2focjp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내 영문 양식을 기입하면 수일 내 페리스코프 프로듀서 등록이 완료된다.

한편, 트위터는 최근 국내에서도 SB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선주자 국민면접' 프로그램을 페리스코프 프로듀서로 트위터에서 동시방송했다.

/뉴시스